

# 초대합니다



## DMOA

보문문화재단, 광산구 사립 첫 문화시설  
현대미술·유물 동시에 만날수 있는 공간

현재 단 8점 존재하는, 조선시대 '목각탱화' 속 부처님의 모습엔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다. 조선초기에 제작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공민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유물 6점은 눈이 부신 황금을 정교하게 조각해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준다.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신비로운 빛의 세계가 연출된다. 전시장 바닥에 담긴 물과 거기에 비친 다채로운 빛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아트 작품은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선조들의 얼이 담긴 의미있는 유물과 다양한 현대미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드문 광산구에 문을 연 이 공간은 민간 차원에서 꾸린 문화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동곡미술관·동곡박물관 문 열어 시민들에 '문화가 있는 삶' 선물

1·2층 동곡미술관  
'동곡, 빛이 내린다' 전

3층 동곡박물관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전  
'동행(同行), 꼭두를 만나다' 전



전 공민왕릉 출토 황금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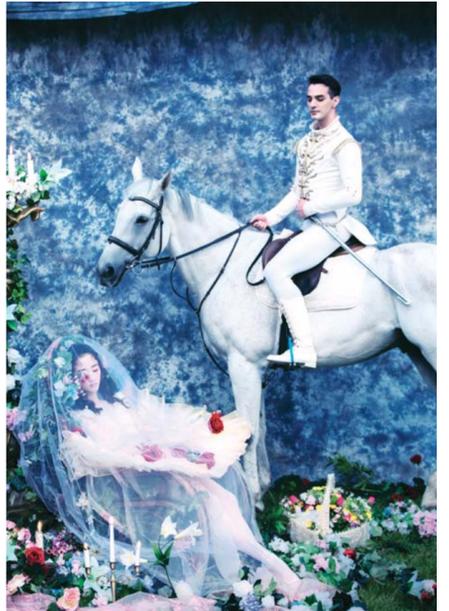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사람 아카이브할 수 있는 작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또 토기, 도자기 유물과 고려시대 만월대 유물인 와당·치미·옹두·전돌 등 1000여점, 꼭두, 상여, 근현대사 자료, 독립운동 및 의병 관련 자료, 키티트 아카이브 등 폭넓은 장르에 걸친 유물을 소장중이다. 이번 개관을 기념해 현재 3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기획특별전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 민족의 얼을 찾아서' (2021년 3월 14일까지)전은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까지 우리 문화재의 멋과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전시다. 김대환 상명대 석좌교수가 기획한 이번 특별전에는 150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소장품과 함께 시민들이 의미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작품을 대여받았다. 전시에서는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등 고조선 시대 유물을 비롯해 국내 불과 20점 뿐인 고구

려 불상 중 3점이 전시되며 고려 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등 한국의 도자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도 나왔다. 상설전 '동행(同行) 꼭두를 만나다'전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꼭두와 상여 등을 통해 사후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획이다. 전시에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아기 상여를 비롯해 다양한 모양의 꼭두 150여점과 옹관묘가 함께 나와 전통 장례문화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달 전 임시로 먼저 문을 연 1층 미술관에서는 현재 미디어아트 특별전으로 '동곡, 빛이 내린다' (2021년 3월14일까지)전이 열리고 있다. 그룹 '사일로렐'의 '윤술'을 비롯해 표기식 작가의 '무제' 연작, 황재영 작가의 'A ripple of time'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00평 규모의 미술관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열 계획

이다. 로비에 고(故) 진양옥 작가의 판화 20여점이 걸려 있는 2층은 교육실과 다목적 공간, 카페테리아로 활용된다. 동곡미술관·박물관은 앞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어린이를 위한 문화교실, 창작체험, 인문강좌 등 시민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보문복지재단 정영현 이사장은 "지난 10여년간 문화재와 미술품에 매료돼 다양한 분야의 유물, 근대사 자료, 미술작품을 수집했는데, 이번에 동곡미술관·박물관을 오픈하게 돼 보람이 있다"며 "의미있는 기획 전시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 관람.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62-945-007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잠자는 숲속의 미녀



## 진실한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광주시립발레단, 18~20일 광주문화예회관

'진실한 사랑이 그대를 눈뜨게 하리' 이 겨울,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판타지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4회에 걸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선보인다.



발레리나 김지영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동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원작으로 마리오스 프리파가 안무를,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맡아 탄생한 발레 역사상 손에 꼽히는 걸작이다. 이번 작품은 광주시립발레단이 20년만에 전막으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군무, 2인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이번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통해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와 함께 차이콥스키 3대 발레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공연 총연출은 최태지 예술감독이, 재안무는 장운규 부예술감독과 안무가 전효정이 맡았으며, 80여명의 무용수와 70여명의 오케스트라, 80여명의 제작진이 참여한다. 새로 제작된 의상규모만 41종 130여벌에 달한다. 그밖에 웅장한 석조양식의 기둥과 화려한 문양의 댄스플로어 등 화려한 무대와 4K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등은 극에 몰입감을 높였다. 무대연출은 유럽에서 활약 중인 디자이너 다리아 바실레바가 맡았으며, 박지우 의상디자이너, 김연수 조경디자이너, 김준우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등이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해 발레에 음악의 감동을 더하며, 연세대 명예교수인 최승환 객원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진실한 사랑 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판타지를 구현할 캐스팅도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 오로라 역에는 강은혜·강민지 단원과 함께 전 국립발레단 수석 김지영 발레리나가 특별 캐스팅됐다. 데지레 왕자역은 이기행·보그단 플로피우·유경희 단원이 연기하며, 극의 스토리를 이끌어갈 리얼락 요정역은 황유정·박경애 단원이, 카라보스역은 김주현 단원이 맡는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예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매. 문의 062-522-871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동북박물관 상설전 '동행(同行), 꼭두를 만나다'



미디어아트 전시 열리고 있는 동북미술관.



## 이연숙 작가와 GB작가스튜디오 탐방 16일 오후 4시 유튜브 생중계

(재)광주비엔날레의 12월 GB작가스튜디오 탐방에서는 이연숙 작가를 온라인으로 만난다. 이연숙 작가와 김성호 미술 비평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가스튜디오탐방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주비엔날레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이 작가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장소성과 기억에 대해 탐구한다. '아버지의 자리\_난 인척 하는 파', '할머니의 부엌', 'Re-Use Me\_A Chandelier(사진)' 등 일련의 작업들은 파, 숟가락, 설탕, 비닐봉지 등 익숙한 오브제를 활용하면서 일상적 감성과 감각을 자극한다. 작가에 의해 조성된 건축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는 심리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재구성되며, 재배치된 오브제들은 연극적인 장소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작가스튜디오탐방' 메뉴에서 이연숙 작가 리플릿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